

제 **16** 호

2015년 하반기 (2015. 7. 1.~
2016년 상반기 2016. 6. 30.)

의정소식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구민 복리증진과 복구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 04 발간사
- 06 의원현황 및 정수
- 07 복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8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주요의정활동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155회 임시회
제156회 임시회
제157회 제2차 정례회
- 1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24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주요의정활동
제158회 임시회
제159회 임시회
제160회 제1차 정례회
- 35 현장속으로
- 43 결의안,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 54 2015년 하반기 ~ 2016년 상반기 포토 의정
- 75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표지설명 : 고현 박상진 의사 생가

발행일 2015년 하반기 ~ 2016년 상반기 제16호
 발행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편집인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052-241-8973
 홈페이지 <http://council.bukgu.ulsan.kr>

발간사



제6대 전반기 북구의회를 마치며
20만 구민을 위해 초심으로
북구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이수선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제6대 북구의회가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발하여 어느덧 2년이 지나고 임기를 2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북구의회 전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구민만을 생각하는 초심으로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저와 함께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께도 치혜와 힘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열심히 뛰었습니다. 돌아보면 구민과 호흡하기 위하여 지역과 실생활에 직결된 각종 조례를 정비하고, 정례회·임시회·현장 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구민의견을 의정에 반영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니라 정책대안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간담회, 전진지 견학 등을 통해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잘하고 있는 일은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집행부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구민과 집행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북구의 발전을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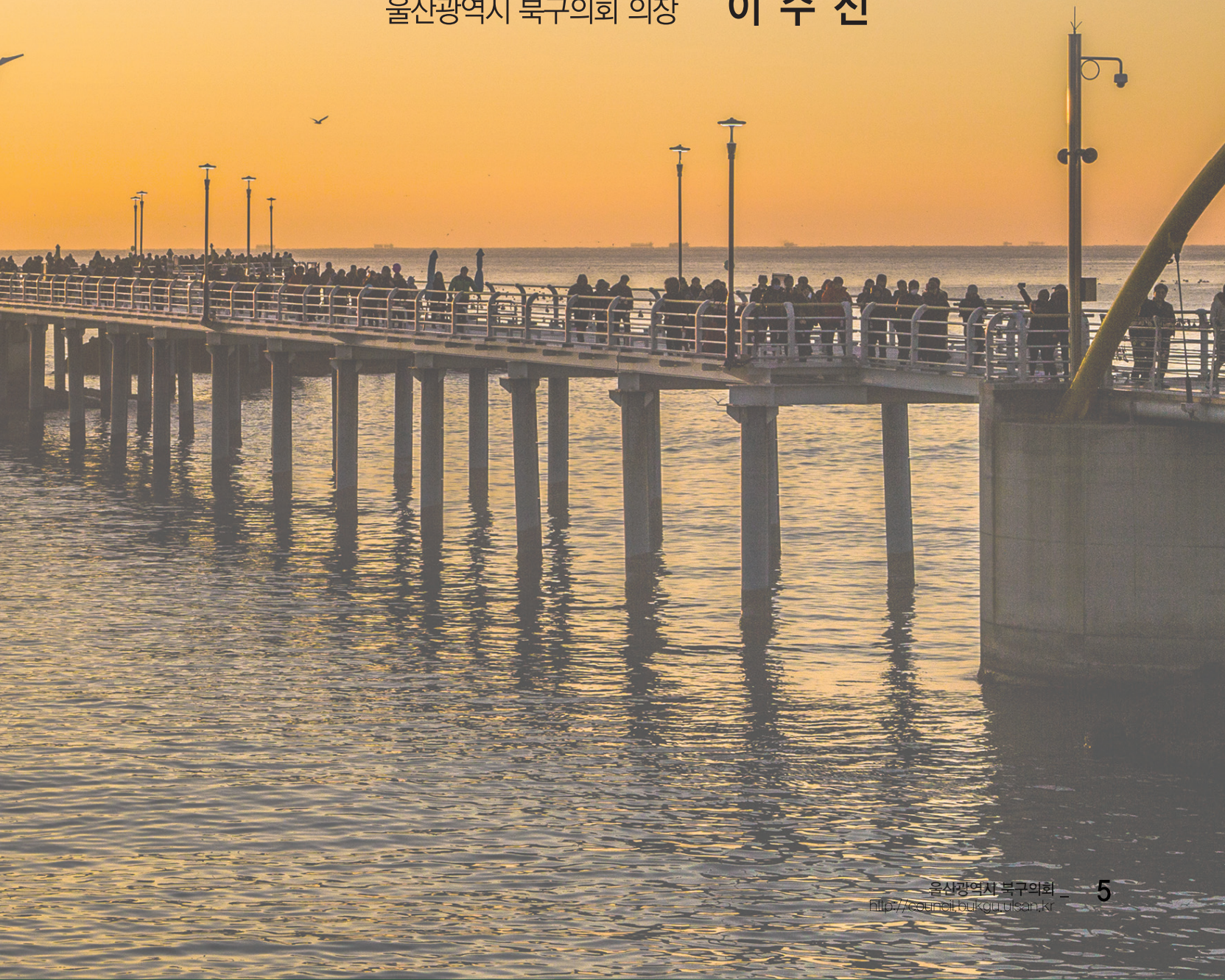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을 위한 책임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민 여러분께서 맡겨 주신 책무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반성도 함께 해봅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낮은 자세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발로 열심히 뛰면서 구민들과 대화를 통해 열린 북구의회를 만드는데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북구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수 선**



의원현황 및 정수

제6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성 명 이 수 선

연락처 010-2833-1929

선거구 농소 2·3동

“주민이 행복한 사람이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부의장

성 명 강 진 희

연락처 010-8610-4748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엄마의 마음으로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성 명 이 상 욱

연락처 010-5535-2362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여가와 문화가 풍성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안 승 찬

연락처 010-6587-1287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주민과 함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북구로 가꾸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윤 치 용

연락처 010-2299-7321

선거구 농소 2·3동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의 원

성 명 백 현 조

연락처010-3801-8364

선거구효문·양정·염포동

“건강하고 활기찬 북구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정 복 금

연락처 010-3446-2002

선거구 비례대표

“아이들이 행복한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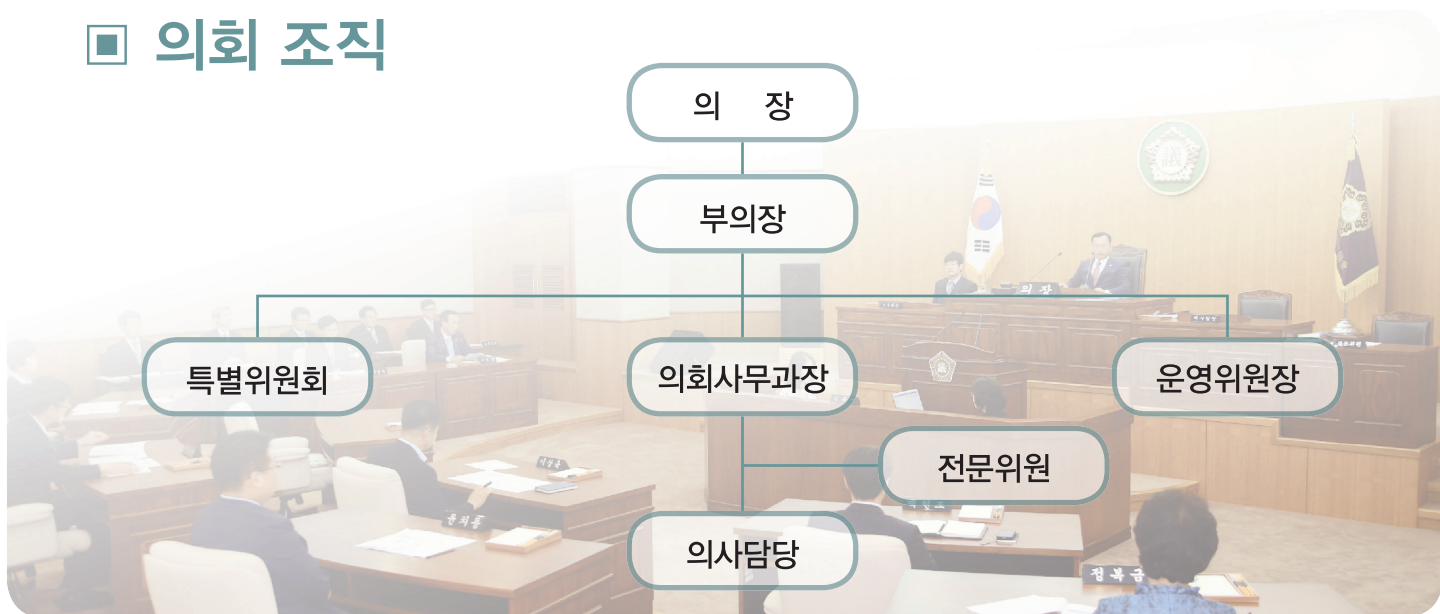
의/원/정/수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7	2	2	2	1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의회 조직





2015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회기운영 현황 (2015. 7. 1. ~ 12. 31.)						
구 분	계		임시회		정례회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2015년 하반기	4	65	2	16	2	49

안건처리 현황											
회 수	일 수	계	예산안	결 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결의안	보 고	질 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54회 (2015.7.10.~7.24.)	15	18		1	8	1		1	1	1	5
제155회 (2015.9.8~9.21.)	14	14	1		7				1	2	3
제156회 (2015.10.13~10.14.)	2	14			9	1					4
제157회 (2015.11.10~12.23.)	34	27	2		13	4				4	4
합 계	65	73	3	1	37	6	0	1	2	7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54회 | 제1차 정례회 2015. 7. 10. ~ 7. 24. (15일간)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7월 1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박천동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54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5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결산승인 및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조례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진희 부의장은 ‘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높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를 발언하였고, 이수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말부터 발생한 ‘메르스’의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하여 수고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민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 정 활 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55회 | 임시회 2015. 9. 8. ~ 9. 21. (14일간)

제155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9월 8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593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안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한편 이수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고, 본회의에서 안승찬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56회 | 임시회 2015. 10. 13.~10. 14. (2일간)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10월 13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승인 했고,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의 정 활 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57회 | 제2차 정례회 2015. 11. 20. ~ 12. 23. (34일간)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부의안건,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0.18% 증가한 2,465억 5,041만원(일반회계 2,452억 3,311만원, 특별회계 13억 1,729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8건 7억 8,220만원을 삭감 승인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33건과 건의사항 70건 총 103건에 대해 감사 지적했다. 감사실시 결과 행정수요에 비해 열악한 인적구성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 등 당면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주요 안건처리 현황

제154회 |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수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악화와 분뇨처리장 이전에 따른 운임 증가 등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현실화로 구 재정부담 경감,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유입 확대에 따라 '다량배출 사업장'의 면적 지정기준 확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2008. 7. 21. 시행) 중 '도시녹화위원회'는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이며, '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구·군 위임사무로서 상위 조례인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모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원안가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이수선, 이상욱 의원]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들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송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원안가결 [강진희, 안승찬, 윤치용 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제155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강진희 의원]

※ 조례의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2014. 5. 28. 공포, 2015. 7. 1. 시행)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안승찬 의원]

※ 2014. 8. 7.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윤치용 의원]

※ 2014. 8. 7.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강진희 의원]

※ 2014. 8. 7.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백현조 의원]

※ 2014. 8. 7.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윤치용 의원]

※ 2014. 8. 7.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제156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기 위함.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4. 8. 7.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됨. 따라서 우리 구 자치법규 주민번호 수집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가.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 필요 나.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기능 강화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한 표준안 시달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조례 규제개선 정비 계획에 의한 정비 및 보완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규제개혁 개선대상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문구의 수정 및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재차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을 단순 확인 재기 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 기준을 따르는 형식으로 전부 개정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과태료 부과 · 징수 등의 절차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2015. 1. 6.)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제157회 |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 7. 20.)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2015. 9. 14.)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그 밖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또는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15. 7. 1.)됨에 따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협력 강화와 동 인적자원망 구축 등 지역의 사회보장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2015. 7. 1.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등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2015. 12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으로 대상·내용이 중복 지원됨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청소년 문화의 집의 공정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구체화한 내용 규정 필요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및 보완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2014. 12. 30.)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급여가 개별 급여로 전환되어 수급자 중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2014. 12. 30.)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급여가 개별 급여로 전환되어 수급자 중 음식물배출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변경(위치변경 및 사업비 증액) 및 강동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2014. 7월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수당(장수수당) 폐지를 권고. 우리 구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장수수당 수혜자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목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근거

-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2015. 11. 23. ~ 12. 1.(9일간)

| 감사결과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01	33	68
공 통 사 항	2	2	—
기 획 홍 보 실	6	2	4
행 정 지 원 국	31	10	21
복 지 경 제 국	26	7	19
건 설 도 시 국	33	11	22
보 건 소	3	1	2



행정사무감사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이수선 의장

주요질의 사항 : 천마산 산림욕장 운영 관련 검토

천마산 산림욕장 사업으로 편백산림길 조성, 전망데크, 쉼터, 피크닉장 조성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 및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유지로서 안정적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바람.

조치사항

- '16년 1회 추경 시 편백산림욕장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조성·관리방안을 마련하고,
- 향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설치완료 후,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 도입지 토지보상 착수를 검토하겠음.

주요질의 사항 : 대설관련 도로분야 설해 대책 마련

겨울철 안전한 도로관리와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장비, 자재 확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분야 제설지도 작성을 통한 체계적 제설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조치사항

-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 운용반 편성 및 제설담당구역 (구청별, 동별) 배정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설해대비 제설장비 점검 및 제설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
- 겨울철 제설작업 시 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완료 및 운영 - 트랙터(22대) 제설작업반 구성
- 제설취약구간(이면도로) 50개소 제설협력체계 구축완료 - 동 주민단체 및 시·구 행정 지원부서 87개(1,548명)

주요질의 사항 :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사업내역 및 정산현황을 보면, 교육과 무관한 물품구입, 교사 개인별 일괄 지급 등 일부 지원 목적에 적절치 않은 사업들이 있음. 심사단계에서부터 사업목적에 맞는지 면밀히 살피고, 또한 정산 시에는 당초 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검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치사항

- 교육경비 지원 계획 수립 및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심의 시 교육과 무관한 항목에 대하여는 삭감하고 사업목적에 맞는지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정산 시에도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보조금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주요질의 사항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제품 우선구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매실적은 매우 저조함. 민간에 대한 판로 개척 지원은 물론 우리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구매가 되도록 전 부서에 협조 바람.

조치사항

-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제품에 대하여 우리 구청은 물론 전국 시·군·구에 우선구매 협조 공문을 매월 발송하고, 새울게시판 안내, 부서별 구매 담당자에게 개별 안내하는 등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016년 정부 합동평가('15년 실적)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을 점검결과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 1위를 달성함】



강진희 부의장



이상육 운영위원장



안승찬 의원

주요질의 사항 : 쇠부리 축제 운영 강화

우리구의 대표 축제로서 잘 추진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축제의 자문역할을 하는 쇠부리축제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연구지원 등으로 단순한 축제가 아닌 전문적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 바람.

조치사항

- 쇠부리축제위원회 위원들의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견문을 확대하여 철기관련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울산북구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및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전국 유일의 쇠부리문화를 소재로 한 울산쇠부리축제가 우리나라 대표 산업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음.

주요질의 사항 : 리조트 매곡산단 방면 비상제동 장치 수시 점검 관리

마우나리조트에서 매곡산단 방면에 설치된 비상제동장치가 바닥이 패여 비상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토록 하고, 또한 설치 안내판이 제동장치 위치에 서 적절한 거리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정비 바람.

조치사항

- 2016. 1. 19일자로 비상제동시설 노면 정비 완료하였음.
- 또한 운전자 식별이 쉽도록 안내판 문구를 수정하였음.
(500m → 전방 500m)

주요질의 사항 :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검토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민자전거 이용 제도,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이 많음. 현실에 맞게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검토, 조례 개정이 요구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조치사항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인프라 구축에 편중되었음.
- 울산광역시에서 NFC(근거리무선통신)를 활용한 “자전거 안심등록제” 구군통합 운영 등을 검토 중임.
- 향후 구정현안에 부합되도록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음.

행정사무감사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윤치용 의원

주요질의 사항 : 도시계획 사업지구 행정지도 및 제도개선 강구

진장·명촌지역 구획정리 지구사업은 2006년 12월 시행사의 부도로 현재까지 도시개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행정적 한계는 있겠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고통 해결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제도적 강력한 조치를 중앙에 건의, 제도개선을 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바람.

조치사항

- 관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사업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주요질의 사항 : 주거 밀집지역 인근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 주거지역 인근의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로 주민들로부터 소음·매연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근절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또한 대규모아파트 단지 일대의 주차단속으로 농서초등학교, 달천 중·고등학교 일대로 불법 주차차량이 몰리어 학생 통학 시 안전에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단속도 인근 지역과 병행 추진 바람.

조치사항

- 2015. 10. 23. ~ 12. 16.까지 약 2개월간 총7회에 걸쳐 관내 주거 밀집 지역 및 농사 초교 등 학교 인근에 대한 차고지와 밤샘주차(0시~4시 사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534대 계도, 112대 적발(화물 99, 여객 13) 및 행정조치 완료
- 차고지외 밤샘 주차한 화물 및 여객 자동차에 월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이며, 특히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밤샘 주차가 되풀이 될 경우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운영할 계획임.

주요질의 사항 :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은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대체적으로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 졌는지 파악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우리 청사를 포함한 동 동주민센터 건축물은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에 적합하게 건립 되었으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예산과 건축물의 구조적 변경 등을 수반하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백현조 의원

주요질의 사항 : 유기동물 대책 마련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일들이 많아지고, 동물사체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길거리를 활보하는 개들로 인한 주민불안 등 민원이 많으므로 유기동물 포획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 바람.

조치사항

- 현재 우리 구는 유기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안, 로드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3개소와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 및 보호를 하고 있음.
- 또한 개의 경우 '13년부터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가 실시된 이후 우리 구는 연도별 유기동물이 점차적으로 감소(20~30%)하고 있으며, 고양이의 경우 TNR사업 시행으로 개체수를 줄이고 있음.

주요질의 사항 :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사면 안정화 작업지 재정비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입구 절개지 사면 안정화 작업지의 마무리된 법면이 호수공원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맞지 않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향후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바람.

조치사항

- 사면안정화 작업지는 쇠파이프를 절개면에 고정하고 철재망을 절개면 전체에 감싼 후 녹생토를 살포하여 초화가 자랄 수 있도록 사면안정화 사업을 하였으나 가뭄 등으로 초화가 자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시공사에 하자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빠른 시일 내 사면이 녹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주요질의 사항 : 도로변 불법현수막 강력한 단속으로 정비 철저

도로변 특히 주말의 경우 국도변이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의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휴일과 야간 집중단속과 정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 바람.

조치사항

- 불법현수막에 대해 상시단속반이 신속히 철거하고 상습 게시자에게는 현수막 한 장당 과태료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음.

주요질의 사항 : 청소년 진로체험 행사 부스 운영 개선

청소년 문화의집 주관으로 2회째 개최한 청소년 진로체험 행사와 관련, 운영상 일부 미비점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앞 인도에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제기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의 조절하여 시행하기 바람.

조치사항

- 행사 주관 기관인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획단계에서부터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제3회 청소년직업체험축제가 안전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정복금 의원



2016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회기운영 현황 (2016. 1. 1. ~ 6. 30.)						
구 분	계		임시회		정례회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2016년 상반기	4	44	3	29	1	15

안건처리 현황											
회수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결의안	보고	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58회 (2016.2.7.~2.29.)	13	20			8			3	1	4	4
제159회 (2016.5.10.~5.24.)	15	39	1		31	1	1		1	1	3
제160회 (2016.6.10.~6.24.)	15	10		1	1	1				3	4
제161회 (2016.6.29.)	1										
합계	44	69	1	1	40	2	1	3	2	8	1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58회 | 임시회

2016. 2. 17. ~ 2. 29. (13일간)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17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수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만이 아닌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2월 17일부터 2월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16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의하였다.



의 정 활 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59회 | 임시회

2016. 5. 10. ~ 5. 24. (15일간)

제159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10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 이수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과 의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진행되는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에 있어 구민의 실생활과 관련 있는 예산이 포함된 만큼 실효성을 적극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제15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증액된 예산규모는 총 210억이다.

이번에 요구된 예산액은 총 217억이고, 이 중 7억 규모의 사업은 심의를 통해 삭감되었다. 삭감된 사업의 세부내역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해외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 연수 등 총 7건이다. 제159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1건을 심의하였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60회 | 제1차 정례회

2016. 6. 10. ~ 6. 24. (15일간)

제16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수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심의를 통해 진정한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

이번 제16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윤치용 의원이 발의한 소로 3-248 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의 건을 심의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그리고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쇠부리체육센터 공사 현장 및 송정택지지구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 정 활 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61회 | 임시회 2016. 6. 29. (1일간)

제16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임시회가 29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 하였다. 이 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북구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의장 ·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였다. 선거 결과 정복금 의원이 의장으로, 강진희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되어 제6대 하반기 북구의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정복금 의장 당선자는 새누리당 초선 의원으로 울산광역시 체육회 이사, 울산 북구문화원 이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4 지방선거에서 북구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날 정복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재임기간 동안 주민에게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세를 가지고 북구민을 위한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 하겠다.” 라고 당선 소감을 발표하였다.

강진희 부의장 당선자는 무소속 재선 의원으로 다선거구(효문 · 양정 · 염포동) 출신으로 동구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사)울산여성회 인권사업위원장 등을 지냈고, 제6대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이 날 강진희 의원은 “부의장 재임기간 동안 어머니의 품처럼 주민들을 보살피고, 동료 의원과 늘 소통하여 북구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라고 당선 소감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제6대 하반기 북구의회를 대표하여 행정과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주요 안건처리 현황

제158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5 회계연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원안가결**
※ 2015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결산에 따른 공정한 검사를 위하여 대상자격을 갖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강진희 의원]**
※ 2014. 8. 7.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백현조 의원]**
※ 제3조제2항의 여비구분과 별표 2의 여비의 명칭이 상이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정복금 의원]**
※ 2014. 8. 7.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이상육 의원]**
※ 의장은 의원 개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개인자격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판례(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판결)를 근거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강진희, 안승찬, 윤치용 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안승찬 의원]**
※ 「지방재정법」 개정 · 시행(개정 2014. 5. 28. 시행 2014. 11. 29.)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 및 결산서 제출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함.



제159회 | 임시회 주요 안전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윤치용 의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산 감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강진희 의원]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기관이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백현조 의원]
※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일부 누락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이상육 의원]
※ 「공동주택관리법」(개정 2016. 1. 16. 시행, 2016. 8. 12. “구,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이상육 의원]
※ 가.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가 5km 이내로 유지되고 있어,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범위와 동일하게 30km로 법 개정이 필요함.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면,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북구 주민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법 개정을 촉구함.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부결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 반영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로도 효율적·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가.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구정목표를 실현하고자, 규제개혁 업무를 복지경제국 창조경제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이관하고자 함.
나. 어물보건진료소의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채권자의 구청장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는 「지방재정법」의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상충됨에 따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조례에 일부 미반영된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함에 있어 법조문을 중복 표현하지 않고 법 조항을 인용하여 조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별도 정의를 두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법령과 북구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상이하므로 잘못된 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개정일 2013. 8. 13.)에 따라 조문 변경사항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문 정비

●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수정하여 조문 정비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일 2015. 7. 29.)에 의한 상위법령 조문 변경사항 반영

●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어촌·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우리 구가 어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인용 법률명의 변경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함)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은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직으로 정할 수 없고 위촉직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가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복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식에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포함)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복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직으로 정할 수 없고 위촉직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 횡단차도 설치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며,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61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도로점용에 대한 목적, 장소와 면적, 기간,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안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제에 해당됨.
 - ※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합리한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복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상위법령인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도로법」(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상위법령인 「도로법」(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용어를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상위법령과 울산광역시 복구 지하수 조례가 상이하므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交通安全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사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交通安全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제160회 |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복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전자파일의 공개 등 정보공개 환경의 변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산정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2015 하반기 북구의회 관내 주요 추진사업 현장 방문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2015년 7월22일 농소하수처리시설 사업현장과 옥동 ~ 농소간 도로 공사 현장 등 북구에서 중점 추진 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농소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북구 상안동 7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84,906백만원이 투입되어 2016년 2월에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다.

또한 옥동 ~ 농소2도로 개설 사업은 중구 성안동에서 북구 중산동까지 총 8.9km구간으로 총179,451 백만원이 투입되어 2017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인 사업이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15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으로 북구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사업추진상황을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날 현장활동에서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하는 등 대상사업이 제대로 추진,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대상사업 추진에 대해 사전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현 | 장 | 속 | 으 | 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장체험 봉사활동



북구의회(이수선 의장)는 2015년 9월 18일 오후 2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현장체험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날 현장체험 봉사활동에는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 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하여 작업장 관계자들과 함께 종이상자 접기와 비누포장 등의 일을 체험했다.

특히 이수선 의장은 “비누 판매포장 작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가 필요하고 반드시 큰 틀에서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소외됨이 없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가는데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 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북구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의원들은 2015년 9월 21일 오전 관내 복지시설인 울산장애인복지센터 주간 보호시설과 이화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생필품과 생활용품을 추석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자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당부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기원했다.

議

현 | 장 | 속 | 으 | 로

김장 나눔 행사



북구의회(이수선 의장) 의원들은 2015년 11월 30일 오후 북구 보건소 지하주차장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함께한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김장 담그기를 통하여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마음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 날 참석한 의원들은 “주민들과 가까운 자리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땀 흘리니 큰 보람을 느낀다”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북구의회는 정기적으로 이웃을 위한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주민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북구의회 무릉산 환경정화 활동



북구의회(이수선 의장)는 2015년 12월 22일 오후 무릉산 정상 등산로변에서 쓰레기 수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함께한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무릉산 정화활동을 통하여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행정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체험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북구의회는 관내 시설 및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 및 현장체험활동을 펼침으로써 주민들을 직접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議

현 | 장 | 속 | 으 | 로

북구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의원들은 2016년 2월 3일 오후 관내 복지시설인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와 아나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생활용품 및 생필품을 설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설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움에 처한 북구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참석한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경주시의회, 울산 북구의회 방문



울산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2016년 5월 13일 오후 1시 30분 북구의회와 쇠부리축제가 열리는 구청 광장, 현대자동차 시설견학 등 경주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개최하였다. 지난 2015년 7월 29일 체결한 양도시 기초의회 간 '상호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울산 북구의회와 경주시의회 상호 간 폭 넓은 문화행사 교류 추진을 위하여 북구를 대표하는 축제인 '제12회 울산 쇠부리축제' 개막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북구의회 이수선 의장, 경주시의회 권영길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및 경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북구의회 의원들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하였고, 동해남부선 철도, 국도 7호선 확장 등 여러 공통 현안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구와 경주시 간에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의원님들께 우리 구의 세계적인 기업 현대자동차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산업 자원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광석 광산인 달천철장으로 대표되는 우수한 철기 문화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양 도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서로의 우수한 문화를 나누어 미래를 향해 상생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라고 환영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환영 행사로 북구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환영 인사 및 홍보 동영상 상영을 하고,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견학, 울산 쇠부리축제 개막식 참석 및 행사부스 체험을 통해 북구를 대표하는 문화 산업관광을 소개하였다. 이날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공업도시 울산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어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렇게 역동적인 북구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 라고 행사 소감을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수많은 역사 자원을 보유하고 명품 관광도시로 널리 알려진 경주시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행사를 통해 경주시의 좋은 정책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 발전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현 | 장 | 속 | 으 | 로

2016 상반기 북구의회 관내 주요 추진사업 현장 방문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2016년 6월 23일 쇠부리체육센터 신축 현장과 송정택지지구 내 LH현장사무실 등 관내 주요 추진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1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으로 북구 관내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쇠부리체육센터는 북구 천곡동 482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쇠부리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159억원이 투입된 건축물로 각종 스포츠 시설 외에도 공연장 등을 갖출 예정이라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시설이 될 전망이다. 이 날 의원들은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과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장애인 이용객에 대한 가족 샤워시설이 없는데 공사 과정에 꼭 반영시켜 소수의 장애인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해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며, 여러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북구 송정동 일대에 조성 중인 송정택지지구는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 및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개발 부지로서 울산 시내 단일 택지지구 중 최대 규모이다. 이 날 의원들은 송정택지지구 내 LH공사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택지지구 조성 계획 및 7번국도와 오도밸리로 접속 도로 등 송정택지지구의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날 의원들은 울산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공 시 까지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해 주고 오도밸리로, 7번국도 접속도로 등 사업 추진 중인 주변 간선 도로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 · 의 · 안

- > 발의자 : 이상욱 의원
- > 의결일 : 제159회 임시회 (2016. 5. 10.)
- > 결의요지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 ▶ 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 이래 지원 범위가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에서 단 한 차례도 확대가 되지 않고 있고, 14기의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발전 규모도 증가하였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범위의 확대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30km로 법 개정이 필요함.
- ▶ 나.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됨.
- ▶ 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 구체적인 방호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지원금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은 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 인력 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방사능 교육, 홍보, 물품 구입, 방사능 방재 훈련 등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의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을 촉구함.

■ 주문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피해가 발전 설비 시설로부터 30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5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원전반경 5~10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였으며, 울산광역시도 30km로 규정하여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전국의 가동원전 25곳 중 13기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월성원전의 30km 반경에는 우리 북구 주민 20만명의 삶의 터전이 있으며, 원전 반경 30km이내에 중첩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울산 북구에만 75,4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1호기는 경주시청에서 27km인 반면, 울산시청까지는 24km에 불과해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울산의 생활권이 대부분이 포함되는 직접 피해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는 이미 30년이 넘는 노후 원전입니다. 원전과 방폐장의 경우 유사시 피해범위가 넓으므로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하여야 함이 타당함

니다. 하지만 법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원전 지원금은 원전 반경 5km 이내에 속해 있는 지자체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1989년 법 제정 당시에는 민원이 대부분 발전소 반경 4~6km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지역의 범위를 5km로 결정하였으나, 원자력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발전규모도 증가한 상황 변화가 있었음에도 지원 범위는 5km 이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의 광범위한 피해상황에 비추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범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범위를 20km 이상 30km 이내로 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5km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면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주민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사능 피해반경에서 6.5km도 안되는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구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신규 편입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원금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은 채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방사선 교육, 홍보, 물품 구입, 방사선 방재 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시민과 북구 주민 20만 모두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 제공과 방사능 방재계획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범위를 반경 5km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범위와 동일하게 30km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로, 발전 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하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범위 확대에 따라 체계적인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정·질·문

- >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 > 질문일시 : 제154회 제1차 정례회 (2015. 7. 24.)
- > 질문요지 : 울산 북구 구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사능 방재 대책에 대하여

- ▶ 방사능 방재정책 수립 전문가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담인력 확보와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재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7월 1일자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였고, 올해 11월에 신규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임. 또한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인력 채용도 적극 검토하겠음. 방재대책 관련 예산은 향후 수립되는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검토하여 2016년 당초예산으로 제출하겠음.

- ▶ 방사능을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주민교육과 훈련이 절실하므로 우리 구의 방사능 교육과 훈련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난 2015년 5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상계획구역설정 승인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관련 워크숍, 고리원전 방호 협의회와 월성원전 방사능 방재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음. 방사능에 대한 주민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타 지자체의 우수 교육사례 등을 참고하여 내실있는 주민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음.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 이음센터 운영에 대하여

- ▶ 2015년 9월부터 직영 운영되는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 이음센터의 운영인력과 업무분장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 동안 위탁 운영하던 인생이모작 이음센터를 9월부터 직영함에 따라, 창조경제과 일자리지원팀에 행정 6급 1명을 전담 배치하여 운영계획 수립 및 인수준비를 하고 있음. 또한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취업관련 구직 및 면접 상담 등을 업무로 하는 전문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하여 9월부터 배치할 계획임.

- ▶ 퇴직자 지원 사업의 핵심인 교육사업, 네트워크 지원 사업 및 '울산형 은퇴 프로그램' 마련 등 프로그램 개발, 정책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2회에 걸쳐 실시한 퇴직예정자 지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업과 퇴직예정자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 구청과 연계된 노사민정협의체,

- ▶ 우리 구의 방사능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기 설치 현황을 알려주시고, 만약 설치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주군 지역에 방사능 측정기 1대를 확보하고 있음. 우리 구도 방사능 측정기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따른 환경방사선 측정기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방사선 측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지역방사능 방재 계획의 수립, 방사능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방호약품 확보 등 방사선 비상계획, 울산시와의 협의, 월성 원전과의 협의내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방사능 방재 계획 및 방사능 사고 대응매뉴얼은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립 중으로 방사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음. 2012년에는 방사능 방호약품 11만 6천 772명분과 2014년에 방호마스크 10만 7천 4백개를 해당 5개동에 배부하였음. 또한 2015년 1월 20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 및 울산광역시와의 간담회에서는 방사능 보호장비 보관장소 확보, 환경방사선 감시기 설치, 주민교육 지원, 원전지원금 관계법 개정 검토, 방사능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등 우리 구 방사능 방재대책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음. 향후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수립과 함께 원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산업단지협의회 및 기업체와 상호협약을 통하여 필요인력을 사전 전수 조사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하겠음. 지역고용센터와 연계한 구인구직 박람회를 확대하고, 센터 내 면접을 전문으로 상담해주는 인력도 배치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함으로써 업무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임. 또한 은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맞춤형 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들이 성공적인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토록 하겠음.

- ▶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 이음센터에서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에 전담하는 인력과 업무분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인생이모작 이음센터에는 일자리 사업을 위한 전담인력 2명과 관리지원 인력 1명 등 총 3명을 배치하여 올해 계획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생이모작 이음학교 등과 같은 우수 사업은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추가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3명을 보강하여 기업체 자료수집 등에 활용 할 계획임.

친환경 무상 급식사업에 대하여

- ▶ 2015년 교육청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구비 절감액에 대해 답변 해주시고, 본 의원은 절감되는 예산만큼 무상급식 확대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전년도에 2015년 친환경무상급식사업 소요액을 조사하여 21억 8천만원을 2015년 당초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1억 5천만 원이 삭감된 20억 3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올해 3월 20 개 초등학교에 전액을 교부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5월에 4인 가족 기준으로 저소득층 최저생계비의 600%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한다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학부모 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신청자가 증가함으로써 우리 구 무상급 식 예산 중 3천 6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강동과 호계지역 아파트단지에 젊은 연령층의 입주로 초등학교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3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친환경급식센터의 교육·체험 인력을 감축하여 상반기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인원 보충 및 앞으로의 교육·체험 사업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올해 초 친환경급식센터 인력은 계약직 3명이었으나, 2월에 1명이 계약만료 되었고 1명은 연말에 계약기간 만료됨. 향후 급식센터 교육 및 체험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사업을 위해 인력 보강을 검토하겠음. 교육·체험사업과 관련 해서는 생산능가 사정과 전문성을 가진 교육강사 확보문제로 상반기에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체험 참여능가 및 대상학교 선정이 완료되어 8월부터 10월까지 체험교육을 실시 할 예정임.

- ▶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서 친환경 급식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변동 없이 운영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급식센터 역할에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 검토된 바 없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도모와 지역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급식센터 운영에 노력하겠음.



구·정·질·문

- > 질문의원 : 안승찬 의원
> 질문일시 : 제155회 임시회 (2015. 9. 21.)
> 질문요지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을 북구의회와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나 의논 없이,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 7월 15일 농소1동 동 순회 방문 때, 계획 중인 호계문화 체육센터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시설 규모가 협소하고 주차면 이 부족해, 센터가 건립된 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이 예견된다는 지적과 함께 인근의 국민체육센터 내 규모의 수영장을 포함한 센터의 건립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이후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선정된 부지와 대체부지 몇 곳을 후보지로 놓고 회의를 거친 후 최종 3곳을 추천하였는데, 부지면 적, 접근성, 환경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소 운동장 위쪽 창평동 390번지 일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올해 1월 농소1동 동 순회 방문 때에, 주민들 다수가 센터 건립에 대해 궁금해 하시기에 최종 결정한 바는 없으나 대체부 지 3곳 가운데 농소운동장 위쪽 제1추천 부지가 접근성 등 여러 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주

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기존 호계문화체육센터 부지와 시설규모에 대해 수차례 주민불만의 목소리가 나와 농소 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사업계획 변경과 대체 후보지 여러 곳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성공적인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2월 3일 제152회 제4차 본회의와 4월 24일 제153회 제5차 본회의 때 현장 접근성과 여러 가지 상황 을 검토한 결과, 농소운동장 인근 부지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 해 위치와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음.

-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행정절차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우선 구(區)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시(市)지방재정투자 책임사와 구(區)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심의를 받을 예정 임. 내년 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도에 는 토지보상협회의와,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2018년 3월 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구·정·질·문(서면)

> 질문의원 : 이상욱 의원
> 질문일시 : 제157회 제2차 정례회 (2015. 11. 16.)
> 질문요지 : 축제 · 행사를 반으로 줄이자

축제 · 행사에 대하여

▶ 투게더 콘서트를 권역별 추진, 동별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투게더 콘서트의 권역별 공연개회는 지난해처럼 동별로 개최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권역별로 공연규모를 확대해 개최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예정임.

▶ 시에서 주관하는 썸머페스티벌을 북구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썸머페스티벌 북구 유치를 위해 올해 8월경 울산문화방송 공연 관계자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내년에는 북구에서 썸머페스티벌을 유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져 2016년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임. 내년 여름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한여름 음악축제의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임.

▶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인 쇠부리 축제 외에 고현 박상진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기획하는 의향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현재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박상진 의사 생가를 포함한 24,009㎡ 부지를 역사공원으로 지정해 오는 2017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한창 공원조성을 위한 주변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고현 박상진 의사를 주제로 하는 축제는 생가와 호수공원, 무룡산과 동대산 둘레길 등 역사체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역사와 생태가 살아있는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생생문화재 사업 등 울산시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유사 축제의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별 행사·축제 총 한도제 운영과 소규모 유사·중복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2016년~2018년까지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공개한 자치단체별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 개최한 행사·축제가 2013년도에 46건 1,598백만원에서 2014년도에 39건 1,298백만원으로, 7건에 3억원이 줄어들었음. 향후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추진계획」이 시달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사 주관단체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제성, 공익성, 성과달성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음. 지역홍보를 위한 대표 축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제 및 사회파급 효과가 저조하거나 소규모 유사·중복 행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통 · 폐합하여 행사·축제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동별 체육행사 폐지 또는 동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내실있는 체육 행사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19만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고, 북구민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체육행사로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와 「동별 자체 체육대회」가 있음. 동별 자체 체육대회는 그동안 자연부락과 아파트 주민 간 동민화합에 기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음. 폐지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됨. 앞으로 북구생활체육회와 동 생활체육회, 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보다 많은 동민들이 관심을 가져 내실 있는 지역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구·정·질·문

>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 질문일시 : 제158회 임시회 (2016. 2. 17.)
> 질문요지 : 노인복지관 건립, 도시재생 사업, 계약직 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입장과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북구의 인구는 1997년 북구 출범당시 10만 4천명에서 2015년 말 현재 19만 1천명으로 약 90%가 증가하였고, 올해는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복지시설 확충을 계

획하고 있음. 그런데 복지시설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구 재정여건,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현재 우리 구에는 호계동에 1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로서 일일 평균 이용자가 약 650여명으로 포화상태인 만큼 제2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임. 제2노인복지관은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건립 부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적합한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 우리 구 도시재생의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의 최종 목표는 지역의 역사를 지역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기업과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함께 염포와 양정지역을 활기가 넘치는 지역사회로 만드는 것임. 노후 건축물과 가로환경의 정비를 통하여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에 주민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아울러 각 세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주민들이 참여하여 각각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는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임.

▶ 도시재생사업에서 관과 주민을 이어주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

요한데, 그 역할을 어느 단위가 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현장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며 센터에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 및 갈등 조정,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됨. 현장지원센터는 센터장인 총괄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부코디네이터, 상근인력,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며 센터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음. 금년에는 현장지원센터 등의 추진체계 구축과 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과정을 거치게 됨.

▶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현대자동차 노사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와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때부터 역할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였음. 그러한 노력의 성과로 작년 4월에는 현대자동차 노사를 포함한 7개 단체가 도시재생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맺은 바 있음.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그간 추진했던 지역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하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협업의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임. 올해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사와 서로의 역할과 의견을 적극 조율하여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임.

계약직 공무원 선발에 대하여

▶ 최근 친환경급식센터 기간제 공무원 선발을 비롯하여 계약직 및 기간제 공무원 선발의 공정성 보장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임기제의 경우 당초 공고된 임용자격 기준에 합격한 2명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였음. 면접관은 총 5명으로 구성하였음. 그 중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외부면접관으로 외부 면접관은 해당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자와 실무공

무원 등임. 면접시험 평가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평정토록 되어있음. 인사위원회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면, 임용권자가 임용하게 됨. 이와 같이 공무원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의 고유기능으로서 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였음.



구.정.질.문(서면)

- > 질문의원 : 윤치용 의원
- > 질문일시 : 제159회 임시회 (2016. 5. 24.)
- > 질문요지 : 농소2동, 3동 지역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농소2동, 3동 지역 현안에 대하여

▶ 농소2동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농소2동 지역의 운동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운동장 조성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다양한 행정절차 이행과 최소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농소2동은 지역반경이 넓고, 매곡동(3,362세대 10,000

여명), 신천동(2,892세대 9,200여명), 중산동(4,583세대, 13,000여명)등 지역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어,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건립위치를 선정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현재 우리 구에서는 건립 가능성 및 주민의 접근성, 시설조성이 가능한 부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동장 건립 가능부지 2~3개소에 대하여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건립부지 및 시설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 **국민체육센터 진출입에 따른 교통불편 및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엠코타운 방향에서 국민체육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개설은, 해당 도로개설지가 공원부지로 현재 울산광역시 공원조성계획에는 미반영 되어 있음. 신천근린공원 내 도로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야 설치 가능하며,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신천근린공원 조성권자인 울산광역시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향후 엠코타운 방향에서 국민체육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개설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 조성된 주차면수는 77면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10시, 20시 전후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조성중인 신천근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임시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임시주차장 설치사업비는 약 8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 신천근린공원이 준공되면 공원에 주차장도 조성되고 쇄부리체육센터가 2017년 7월에 준공되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농소3동 주민 일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현재의 신천근린공원 조성계획도에는 주차장이 공원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와 공원이용자가 함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로 변경될 수 있도록 울산시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지역 상류부 좌안의 순환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추가개설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시 주변현황을 감안하여 매곡천 상류부 좌안은 매곡고등학교까지, 우안은 매곡교까지 자전

거 도로 등의 하천을 정비한 바 있으며, 매곡교 위쪽으로는 하천 내 산책로가 아닌 확장된 도로변 인도가 조성되어 구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음. 하지만 향후 매곡동 일원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매곡도서관 신축 등 매곡천 상류부 친수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도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곡교에서 돌논천 합류부까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매곡교 상류 우안 하천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하도 구간내 저수호안 설치 등이 필요하며 적지 않은 예산(10억 정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매곡천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정비가 완료된 사항으로 추가 국·시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구 전체 20개의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친수공간 조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 **상안어린이공원 내 풋살구장 이전요구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015년 풋살구장 쓰레기 투기 및 운동소음에 대한 민원제기로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전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이전을 보류한 상태임.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운동 소음 등에 대해서는 풋살구장 예약시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용 동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음주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2회 이상 적발된 단체에 대하여는 풋살구장 사용을 제한하여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풋살구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등 풋살구장 신규설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5회 임시회 (2015. 9. 8.)

발언요지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은 재벌개혁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고 세금감면 해주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자기를 공간만 채우고 있다. 현재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공간에 쌓아둔 돈만 710조, 무려 우리 국가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재벌이 식당과 커피숍만이 아니라 공나물과 두부가게까지 공략하는 탓에 중소기업은 최저임금도 주지 못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재벌은 자기 기업의 일자리도 직접 줄입니다. 정리하고, 명예퇴직, 구조조정, 아웃소싱 이렇게 줄인 일자리만 무려 130만개입니다. 지난 5년간 법인세 감면으로 혜택 받은 돈이 37조인데 재벌대기업은 무려 14조원이나 투자를 줄였습니다. 세금감면까지 고려하면 총 51조나 투자를 줄인 셈입니다.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 이러한 소득불평등을

정부와 재벌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 이 균형을 맞추어야만 청년일자리,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삶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재벌개혁을 외면하고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재벌의 공간을 더 채워주고 중산층을 없애겠다는 중산층 몰락 프로젝트의 다른 이름입니다. 연봉 5천에서 8천정도 되는 50대 부모님의 임금을 깎겠다? 전체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와 내수마저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는 재벌개혁을 통해서만 늘릴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면 부모자식, 모든 국민이 웃습니다. 청년은 실업에서 벗어나고 부모 세대는 임금삭감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고 중소기업자는 물건을 더 많이 팔게 되고, 그래서 내수가 늘면 심지어 재벌 대기업에게도 좋습니다. 이제 가짜 노동개혁이 아니라, 진짜 재벌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55회 임시회(2015. 9. 8.)

발언요지 ▶ 공무원 노조간부의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며 여성공무원을 집회의 방패막이로 세운 것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오늘 저는 지난 8월 17일 진행된 울산시 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권○○, 안○○, 임○○ 공무원에 대한 해임과 강등 등의 중징계와 17일 당일 울산시 여성공무원을 앞세워 울산시청 현관 경문을 봉쇄한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하여 규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징계를 받은 세 사람은 사전에 연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연가 신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4월 24일이 민주노동총파업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불허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살인과 같은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탄압한 것이라면 소동과 설득보다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간부들에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노조간부들을 탄압함으로써 동료 공무원들과 격리시키려는 처사입니다. 정부방침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대를 탄압하고 정부의 안대로 강행하려

는 폭력적 처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자치부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35명의 징계대상자 중 유일하게 울산시 북구청의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무원노조 중앙본부 간부들에 대해서조차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울산지역 간부들에 대해서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울산시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부당한 징계에 대한 항의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 공무원의 평화적인 항의 집회에 울산시청 신청사 현관 경문을 봉쇄하기 위해 여성공무원들을 제일 앞에 세워 성을 무기로 봉쇄한 반도덕적, 반인권적, 반여성적 행위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회참가자들도 그러지 말라는 부탁을 하는 반도덕적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동원과 방패막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반여성적, 반인권적인 공무원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7회 정례회(2015. 11. 20.)

발언요지 ▶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한국사 국정화 고시 즉각 철회하라!

1974년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국정교과서를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다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친일과 독재 미화로 귀결될 것이 필연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군사적전하듯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근혜 정권에 이어 최근 새누리당은 교육부와 국가편찬위원회에 국정교과서의 대표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정교과서가 가치중립의 역사문제에 권력이 개입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며, 현행 검정교과서의 좌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는 정부여당의 우편향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국정

교과서의 퇴행성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태도가 주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독재의 신호탄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우리 역사 교과서에 기재된 친일파의 친일행적과 군부독재의 잘못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정권의 정당성,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어두운 미래로 내칠 것입니다. 우리 역사와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한국사 국정화 고시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7회 정례회(2015. 12. 16.)

발언요지 ▶ 지역 복지와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규탄한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비방안은 가족이나 열악한 지역복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정비 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다음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복지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조손가정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노숙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모두 삭감대상, 정비대상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비 방안이 위협하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9월 30일 지방

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장악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알뜰하게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들을 유사, 중복, 편중 운운 하면서 폐지·축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법상의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OECD 최저 수준의 복지, 최악의 자살률,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가족이나 없는 복지를 빼앗는 정부를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57회 정례회(2015. 12. 16.)

발언요지 ▶ 재벌만 편드는 노동 개악안 즉시 폐기하라! 노동탄압 중단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노동공약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대선 공약,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탱해 주던 바그루마저 건어차겠다는 공약파기가 바로 노동개악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온데간데 없고, 청와대는 재벌이나 사용자단체의 민원처리 급행 창구 인지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협박하고 강행처리를 주문합니다. 술한 이익금은 다 챙겨먹고 이제 와서 장기근속자가 늘어나니까 통상임금이 부담돼서 근로기준법 개악하자는 것이 노동개혁입니까? 일반하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는 저성과자란 이름으로 노동자를 쥐어짜고 하고 시켜도 된다고 노동부에서 토론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80만 노동자 대표로서 노동대재앙을 불러올 노동 개악안을 막아내기 위해 온갖 수모와 난관에 앞서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싸웠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저버리고 재벌 정부 노동 개악법 강행 처리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울산시민들은 노동 개악법을 연말 임시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지도부를 짓밟겠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 노동개악 처리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힙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7회 정례회(2015. 12. 23.)

발언요지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1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급격히 퇴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1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급격히 퇴행하고 있습니다! 당이 강제 해산되고, 무소속 의원으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서러웠지만, 1% 재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99% 국민을 위한 정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힘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월등히 커서 해산결정이 불가피하다”는 명목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라면 정당해산 결정 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은 더 활성화 되었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보장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기본권은 훼손되고, 우리

사회는 전두환 정권시절로, 박정희 유신정권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며 진보정당을 해산시킨 것처럼 이미 사문화된 소요죄를 적용하며 군사정권시절로 되돌아가 민주노총을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5대 법안을 여야가 야합하는 것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 진보정치를 열망하는 노동자들의 열망은 뜨겁습니다. 1% 재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돈 없고 뺨 없어서 서러운 노동자·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위해 더욱 달려가겠습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8회 임시회(2016. 2. 17.)

발언요지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친일정권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2015년 12월 28일,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을 내민 어처구니 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습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했습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각 지역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무엇 때문에 다급하게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입니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 온 전시 성폭력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정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58회 임시회(2016. 2. 17.)

발언요지 ▶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불법적 정부의 2대 지침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사회는 꿈과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청년실업과 민생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퇴직자 문제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정, 노동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대 지침은 대량 해고를 양산하고,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해 온 내용입니다. 이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법적 문제가 있는 2대 지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지침입니다. 정부의 '쉬운해고 지침'은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벗어난 '암대로 해고' 지침입니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저성과자 해고 실행을 발표했으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를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 '쉬운해고 지침'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법의 해고제한 취지를 흔들고 해고대란을 부추기는

행정지침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헌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지침은 정면으로 이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이며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설립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불법적인 2대 지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동재앙이라고도 하는 2대 지침을 지속하고 강행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모든 불통을 그만두고 소통하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서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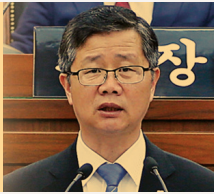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8회 임시회(2016. 2. 25.)

발언요지 ▶ 박근혜 정권 3년, 민주주의 파괴, 민생포기, 경제파탄, 평화와 통일마저 포기, 2016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취임 3년차를 보내고 4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는 멈추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주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자는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며 대북 적대과 전쟁 불사의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국민의 안위보다 민족의 이익보다 더 우선할 것은 없습니다. 외교와 안보에서 무능함을 표출한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대기업과 재벌의 민원만 해결해 주려고 노동자, 서민들의 목줄을 조르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에 대한 노동자의 분노로 개악안 통과가 지연되자, 불법 정부지침을 통해 일반해고를 기어이 강행하고자 말았습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귀 기울이는 고통은 재벌과 부자들의 고통뿐이며, 자신들에게 국민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현 시국을 그러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대통령 관심 법안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집권 만3년이자 4년차의 시작인 25일을 하루 앞둔 국회의 진풍경입니다.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이유는 박근혜의 집권 이외는 없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테러를 방지하는 법이기 이전에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의 권한을 늘리는 법안이며 이를 통해 비판세력을 감시·통제하는 '민주주의 테러법안'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협박에 굴복해 시대착오적 이유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 큼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많은 참여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58회 임시회(2016. 2. 25.)

발언요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직권상정한 국정원의 대국민 감시용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성을 갈겠다”며 청와대의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요구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직권상정을 감행했고 야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대하고자 합니다. 테러방지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조항만 말씀드리면, 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조항인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1명의 인권보호관이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집행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조직이 국정원입니다. 8조 전담조직의 설치 조항도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감청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

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의 핵심인 9조는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과 금융거래 정보,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국정원장의 허가가 없으면 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안기부가 여야 거물급 정치인과 국무총리, 청와대 수석, 참모총장 등을 불법적으로 도청하여 파일을 만들어 관리해 온 안기부 X파일을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안기부가 한 도청이 불법이었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합법적인 감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장의 판단에 따라 국민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와 한반도 긴장감을 조성하여 열고자 한 것이 테러방지법 통과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과 세력을 감시하면서 권력을 유지, 영구독재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19만 북구주민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59회 임시회(2016. 5. 10.)

발언요지▶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표적수사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6년 4. 13 총선결과는 16년 만에 여소아대로 막을 내리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경제정책 실패와 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정리해고에 예견되는 시점에서 반 노동, 반 시민 정책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한 민여가 투표로 표출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헌법과 상위법마저 무시한 노동법 개정 추진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으며, 역사교과서를 마음대로 바꾸고 세월호 아이들조차 구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를 지탄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나타났으며,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년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울분들이 투표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권은 더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하여 전격적인 압수수색 강행으로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소아대정국을 타계하려는 모습에서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1차적으로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은 지역방송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입니다. 방송 결과는 윤 당선인이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가능성이 높게 나왔으나, 공교롭게도 언론사 여론조사 발표가 있기 전에 압수수색이 강행되었고, 저녁 뉴스에는 여론조사 결과와 압수수색 장면이 나란히 보도되어 공안감찰의 선거개입 의혹이 의심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윤종오 당선인의 불법선거 정황이 적발 되었다면, 정황을 선관위에서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시 1차적으로 해당 책임 선거사무원이나 후보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상식과 도의를 한참 벗어난 특수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나오는 유사선거사무소는 “선거를 위해 대규모의 컴퓨터와 전화를 설치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유사선거사무소로 지목한 북구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은 1년 넘게 지역 주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개방된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검찰의 1차 압수수색에서 유사선거사무소로 불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당선인 확정된 다음날 선거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이도 모자라 당선인의 자택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것은 상식적인 이유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번 윤종오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도를 넘는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노동자 출신 당선인에 대한 정도를 벗어난 정치적 탄압에 우려를 나타내며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하고 당선시킨 윤종오는 무리한 검찰수사와 공안정국을 조성해서라도 당선무효 시켜야 할 탄압의 대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혐의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인지도 정황으로만 당선자에게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국회의원을 향한 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60회 제1차 정례회(2016. 6. 24.)

발언요지▶ 시례새터~상안새터 도로개설 계획변경과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부결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정과 의회의 독재입니다.

얼마 전부터 본 의원은 많은 생각과 실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시례새터 ~ 상안새터 소방도로 개설” 관련한 민원을 접하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부터입니다. 의원들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다가 의회의 권한이자 기능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당초 의원들끼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주고 말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말도 안되는 반대와 표결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상식적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초 계획한 소로3·20호선의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한 사실입니다. 처음에 노선변경 불가라는 회신을 준 시안이 똑같은 민원인이 구청장을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자마자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히고, 마을공동체와 마을의 화합을 하루 빨리 만들도록 하는 것도 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문제가 없다는 듯이 주민을 대하며 주민갈등과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법정에 까지 문제를 들고 가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조사 건을 다루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에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와 의원이 해야 할 일을 ‘법원에 맡기고 개입하지 말자’ ‘법원에서 결정하니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의원들이 중립적이지 않다’ 등의 발언은 의원으로서 권한과 임무를 버린 것이고, 의회의 기능을 법원에 위탁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소통의 정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민원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의회의 권리와 의무마저 버릴 수 있는 지 같은 의원으로써 부끄럽고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 것은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이기에,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자는 저의 결심과 동료에 대한,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에게도 호소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 나선 사람들인 만큼 스스로를 희생하더라도 주민과 지역,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60회 제1차 정례회(2016. 6. 24.)

발언요지 ▶ ‘맞춤형 보육’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0~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오후 3시에 하원을 해야 하는데, 억지로 아이를 깨워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체리듬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업주부들은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맘들이 빨리 하원하는 아이들을 보며 남겨진 내 아이가 느껴야 할 불안감을 걱정해야 합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로 조정되는데 맞춤형 조정이 많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 타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종일제 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보육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운용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종일

반은 정부가 제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반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증빙이 용이하지 않거나, 종일반 이용이 필요함에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배제되는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우려됩니다. 애초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원칙을 세운 데에는 맞벌이 가정 부모뿐만 아니라 취업준비, 학업, 가족 기능의 상실, 비정규직 생업 종사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이 있고, 애초에 가족의 보육책임을 공공이 나누어지겠다는 취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육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지키고(保) 돌보는(育) 일이며, 동시에 같은 의미로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은 중요한 사회정책이며,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시행을 목전에 둔 ‘맞춤형 보육’ 정책에 있어,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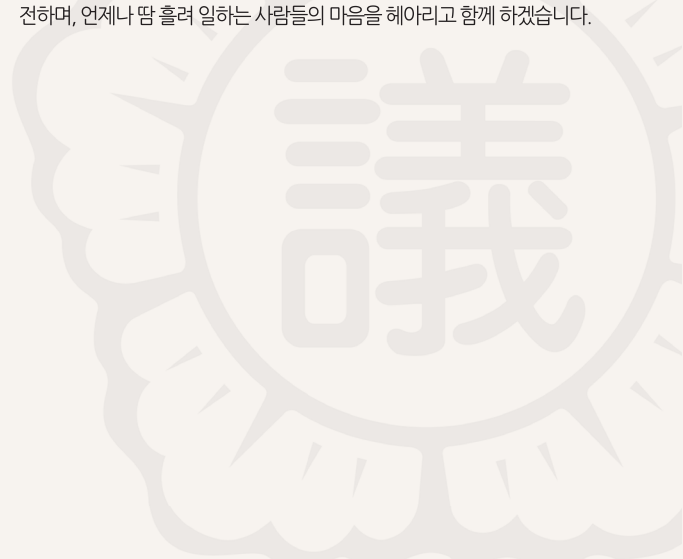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60회 제1차 정례회(2016. 6. 24.)

발언요지 ▶ 조선 산업 위기에 따른 무원칙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합니다.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공포가 우리 사회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리해고식의 구조조정은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외환 위기에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모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IMF식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욱 편중된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해외공장 증설, 과도한 수출 의존에 따른 내수 비중 약화, 좋은 일자리 축소, 비정규직 노동자 무한 양산과 이에 따른 극단적 사회 양극화, 이것이 IMF가 강요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의사가 사람을 고칠 때에도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조선 산업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위기를 극복하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이 조선 산업에서 얼마나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습니까? 재벌 오너 일가와 경영진들은 얼마나 많은 배당을 챙겨 갔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오류와 책임을 말하는 재벌과 경영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이익은 사유화하고 부실은 사회화’ 하여 또다시 국민에게 책임을 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방적인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구조조정,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삶과 생계를 책임지는 대책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한국경제의 토대이고, 노동자의 기술력이 제조업의 경쟁력입니다. 일시적으로 조선 산업이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 한국 제조업, 조선 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울산은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한국경제의 심장입니다. 또한 조선 산업의 미래, 조선 산업 노동자들의 미래가 울산 발전의 기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산업의 위기는 울산의 미래, 울산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가나 정치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불행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한파에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며, 언제나 맘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 포토의정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2015. 7. 2.)



극동푸른작은도서관 개소식 (2015. 7. 18.)



양정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개장식 (2015. 7. 18.)



강동 해마르레제체침마을 개장식 (2015. 7. 27.)



울산 북구의회-경주시의회 우호 교류



쇠부리체육센터 기공식 (2015. 9. 7.)



오치골 경로당 개소식 (2015. 9. 8.)

2015 PHOTO Council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2015. 9. 12)



사회복지시설 추석 위문품 전달 (2015. 9. 21.)



협약 체결 (2015. 7. 29.)



제2회 울산북구 책잔치 (2015. 10. 31.)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 (2015. 11. 1.)



제16회 복구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2015. 11. 7.)



중국 비정시 북구의회 방문 (2015. 11. 5.)



2015년 하반기 포토의정



2015 동천 뚝방길 달리기대회 (2015. 11. 15.)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형상 및 현판식 (2015. 11. 24.)



북구 지역아동센터 후원의 밤 (2015. 11. 24.)



상안테니스장 개장식 (2015. 11. 29.)



울산동부경찰서 치안정책



장애인 의정 모니터 우수의원 시상식 (2015. 12. 17.)



6.25 참전유공자 선양비 준공식 (2015. 12. 22.)

2016년 상반기 포토의정



울산북구시니어클럽 개소식 (2016. 1. 25.)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2016. 2. 3.)



설명회 방문 (2016. 5. 10.)



매일119안전센터 개청식 (2016. 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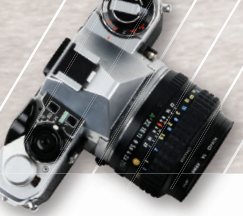
제3대학 제9기 입학식 (2016. 3. 8.)



1·3세대 행복만남 경로당-어린이집 결연 협약식 (2016. 3. 11.)



산음수변공원 개장식 (2016. 3. 10.)



2016년 상반기 포토의정



2016 나무심기 행사 (2016. 3. 30.)



4.19 민주열사 정임석 추모행사 (2016. 4. 19.)



북구청 장애인 수영단 창단식 (2016. 4. 21.)



매곡도서관 기공식 (2016. 4. 27.)



제2회 울산신부리축제



북구 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 (2016. 4. 29.)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2016. 5. 2.)

2016 PHOTO Council



북구 어린이 큰잔치 (2016. 5. 5.)



경주시의회 문화교류 초청 행사 (2016. 5. 13.)



(2016. 5. 13.)



동천 뚝방길 건강달리기 대회 (2016. 5. 22.)



제5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2016. 5. 28.)



관내 주요 추진사업현장 방문 (2016. 6. 23.)



강동해변 몽돌마라톤 대회 (2016. 6. 12.)



2015년 하반기 포토의정 | 이수선 의장



의장실 제무 모습 (2015. 7. 1.)



전국 시·군·구 의장 청와대 방문 (2015. 12. 21.)



민주평등 유공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2015. 12. 23.)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전국 시·도 대표회의 의정봉사상 수상 (2015. 12. 2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2016. 1. 7.)

2016년 상반기 포토의정



어버이날 기념 효사랑 카네이션 축제 (2016. 5. 3.)



제12회 울산외부리축제 (2016. 5. 13.)

사람이 살기좋은
만들겠습니다.”



동천 뚝방길 건강달리기 대회 (2016. 5. 22.)



관내 주요 추진사업현장 방문 (2016. 6. 23.)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2016. 5. 28.)



2015년 하반기 포토의정 | 강진희 부의장



염포 새장터 갤러리 준공식 (2015. 9. 9.)



2015 울산여성가족 정책포럼 (2015. 12. 8.)



쇠부리 역사,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2015. 12. 11.)

“엄마의 마음으로
복구를



장애인 의정모니터 우수의원 시상 (2015. 12. 17.)



무룡산 환경정비 (2015. 12. 22.)

2016년 상반기 포토의정



2016 나무심기 행사 (2016. 3. 30.)



기박상성 의병 문화제 (2016. 4. 23.)

안전한
만들겠습니다."



송정동민 체육대회 (2016. 4. 24.)



매곡도서관 기공식 (2016. 4. 27.)



우리마을 치매사랑방 현판식 (2016. 4. 25.)



2015년 하반기 포토의정 | 이상육 운영위원장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장체험 활동 (2015. 9. 18.)



축석맞이 이화지역아동센터 위문 방문 (2015. 9. 21.)



농소동 흙길 커뮤니티 고구마캐기 체험 (2015. 10. 23.)



농소동 효도잔치 (2015. 11. 1.)



송정동 김장 담그기 행사 (2015. 12. 5.)

“여가와 문화가
북구를

2016년 상반기 포토의정



정월대보름 행사 (2016. 2. 22.)



농소수질개선사업소 준공식 (2016. 3. 10.)

풍성한
만들겠습니다.”



북구 새마을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2016. 4. 29.)



호계공설시장 상인대학 입학식 (2016. 6. 10.)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2016. 5. 2.)



2015년 하반기 포토의정 | 안승찬 의원



도서관 어린이와 함께하는 창녕우포도서관 견학 (2015. 8. 29.)



참사랑봉사대 동천강 환경정제 (2015. 9. 20.)



김장 나눔행사 (2015. 11. 30.)



마중물 가족봉사단 지역봉사 체험 활동 (2015. 12. 12.)



장애인의정모니터 우수의원 시상식 (2015. 12. 17.)

“주민과 함께
숨쉬는 북구로

2016년 상반기 포토의정



산음수변공원 개장식 (2016. 3. 10.)



나무심기 행사 (2016. 3. 30.)

자연이 살아
가꾸겠습니다.”



송정동민 체육대회 (2016. 4. 24.)



바다별 어린이집 개원식 (2016. 6. 9.)



북구 노인 건강 체육대회 (2016. 5. 4.)



2015년 하반기 포토의정 | 윤치용 의원



1.3세대 신나는 명랑운동회 (2015. 9. 9.)



클린 나눔장터 (2015. 9. 12.)



추석맞이 이화지역아동센터 위문 방문 (2015. 9. 21.)

“땀흘려 일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장애인 의정모니터 우수의원 시상식 (2015. 12. 17.)



무룡산 환경정비 (2015. 12. 22.)

2016년 상반기 포토의정



제설 대비 숙달 훈련 (2016. 1. 20.)



매곡119안전센터 개청식 (2016. 2. 26.)

사람들이 존중받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북구청장배 테니스 대회 (2016. 4. 24.)



숙박시설 건축 허가 관련 민원상담 (2016. 5. 4.)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걷기대회 (2016. 4. 24.)



2015년 하반기 포토의정 | 백현조 의원



1.3세대 신나는 명랑운동회 (2015. 9. 9.)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2015. 11. 17.)



김장 나눔행사 (2015. 11. 30.)



무릉산 환경정비 (2015. 12. 22.)



지역 노사민정 사업 대통령상 수상 (2015. 12. 23.)

“건강하고 활기찬
열심히

2016년 상반기 포토의정



북핵실험 반대 1인 릴레이 (2016. 1. 12.)



북설대비 신규구입 제설차량 성능 점검 (2016. 2. 25.)

북구건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나무심기 행사 (2016. 3. 30.)



강동해변 몽돌마라톤 대회 (2016. 6. 12.)



새봄맞이 대청소 (2016. 3. 31.)



2015년 하반기 포토의정 | 정복금 의원



1.3세대 신나는 명랑운동회 (2015. 9. 9.)



북구 자원봉사자 대회 (2015. 12. 1.)



바르게살기운동 (2015. 12. 4.)

“아이들이 행복한
최선을



무릉산 환경정비 (2015. 12. 22.)



효문동 군교과마 급기 봉사 (2015. 12. 24.)

2016년 상반기 포토의정



정월대보름 행사 (2016. 2. 22.)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2016. 5. 2.)

북구를 위해
다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친환경 재배 농가 현장방문 (2016. 5. 2.)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 (2016. 5. 24.)



북구 어린이 큰잔치 (2016. 5. 5.)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내용

10:00 ~ 17:00 (토, 공휴일 제외)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전문위원실(5층)에서 접수
전화: 241-8982 팩스: 241-8979

농소2·농소3동	효문·양정·염포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농소3동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안승찬	윤치용	백현조	정복금
의장실 : 241-8900 010-2833-1929	부의장실 : 241-8910 010-8610-4748	사무실 : 241-8930 010-5535-2362	사무실 : 214-8950 010-6587-1287	사무실 : 241-8960 010-2299-7321	사무실 : 241-8940 010-3801-8364	사무실 : 241-8920 010-3446-2002

※ 의회 방문 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담시간을 사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화052) 241-8971~8975

FAX052) 241-8979

주소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council.bukgu.ulsan.kr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여러분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새시대를 열어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